

포스코 주주님께 드리는 서한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에 보내주시는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지난 12월 10일 이사회에서 철강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을 통해 그룹 경영체제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는 1월 28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면 현재의 (주)포스코는 사명을 포스코홀딩스(주)로 변경하고, **그룹의 경영전략을 총괄하는 회사로서 1) 그룹의 미래 포트폴리오 개발, 2) 그룹사업 개편 및 시너지 확보, 3) 그룹 ESG 경영을 리딩하는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분할 후, 철강 사업부문은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철강자회사의 상장 가능성에 대해 주주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강사업의 경영성과가 현재와 같이 주주 여러분께 직접 귀속될 수 있도록 상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이사회 **의 확고한 결론**이며 **회사의 일관된 방침**임을 강조드립니다.

회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여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왔으며, 미국의 철강전문 분석기관인 WSD(World Steel Dynamics)에 의해 12년 연속 세계 최고의 철강사로 선정될 만큼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철강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차전지 소재, 에너지, 트레이딩, 건설 분야에서도 견조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 경영환경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저탄소 전환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부터 흔들며, 친환경소재, 신모빌리티, 디지털, 바이오 분야의 기술 혁신 가속화는 새로운 미래성장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예견되는 혁명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회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중장기적인 사업전략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영체제에 대해서도 수차례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철강사업의 운영과 미래사업의 개발 및 그룹사업의 관리를

한곳에서 수행하는 체제로는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그룹 차원의 성장사업 육성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하면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발전하기 위해 경영체제의 혁신이 절실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포스코는 금년도 사상 최고의 경영성과와 더불어 양극재·음극재, 리튬, 니켈, 수소사업 등 그룹의 사업영역을 미래지향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양극재·음극재사업은 이미 연간 114천톤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리튬과 니켈사업도 상업화 직전 단계에 있어 조만간 독자적인 사업으로서의 성과도 가지화될 것입니다. 그린스틸과 그린에너지의 필수요소로서 그룹의 미래와 직결되는 수소사업은 철강, 발전 등 풍부한 자가수요를 기반으로 그룹의 핵심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과 공동으로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검토중이며 전문기관들과 R&D 협업을 통해 사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성장사업 분야에서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시가총액은 지난 2007년 최고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저성장 철강 주식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새로운 성장사업의 잠재력이 거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의 경영 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철강과 신사업 간의 균형성장이 가속화되고 사업정체성 또한 철강에서 친환경 소재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성장주로서의 노력이 기업가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으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을까 걱정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존속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를 보셨기 때문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물적분할한 철강회사를 상장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세웠으며,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철강자회사의 정관에 상장을 위한 규정을 일절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분할 후에도 지주회사 및 철강사업회사의 재무구조가 우수하여 자금조달 목적의 상장은 불필요하며, ‘분할후 상장’을 하지 않는 것이 지주사-자회사 주주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는 선진적인 소유지배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요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상장하지 않음으로써 성장의 가치가 지주회사의 주주가치로 그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설 철강회사는 비상장회사임에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재와 같은 투명한 지배구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철강사업은 그룹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서, 철강자회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그린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를 확대하여 그룹의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비상장으로 전환되더라도 철강사업의 성장전략과 성과 등 주요 경영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 여러분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지주회사 전환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친환경 사업 위주로 성장을 가속화하여 균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면 2030년의 기업가치는 현재보다 3배 이상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철강사업은 조강생산량 6,800만톤이라는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국내 탄소배출량을 7,100만톤까지 낮춤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신성장 분야인 이차전지소재, 리튬사업은 글로벌 시장점유율 10%를 확보할 것이며, 수소사업은 글로벌 Top 10 생산자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

당사는 중기배당정책에 따라 2022년까지 연결배당성장 30%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그 이후 기업 가치 증대를 고려하여 최소 1만원 이상 배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중 일부에 대해서 연내 자사주소각을 실시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이어진 도전과 성공의 역사를 토대로 100년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한 중차대한 전환점에 서있는 저희 임직원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믿고 지켜봐 주신 것처럼 미래를 위한 포스코의 변화에 다시 한번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큰 성장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최 정 우

최 정 우

